

# K-푸드 페스티벌, 몽골을 뜨겁게 달궜다

### 울란바토르서 한류와 함께한 B2C 소비자 체험 홍보 행사 성황리 마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몽골 울란바토르 국립공원에서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2024 한국주간 K-관광로드쇼와 연계한 'K-푸드 페스티벌'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몽골은 이마트, CU, GS25 등 한국계 유통매장이 본격 진출하면서 K-푸드 수출이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K-드라마와 예능 등 한류 열풍으로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 중인 국가다. 이에 농식품부와 aT는 K-푸드에 K-컬처를 접목한 대규모 B2C 홍보 행사를 마련해 몽골 소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번 행사는 '전베노(안녕), 인사동'을 주제로 인삼, 김치, 장류 등 전통



식품과 프리미엄 신선 농산물을 비롯해 현지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리본, 음료, 과자 등 다양한 K-푸드를 선보였다.

특히, 육류 위주 식습관을 가진 몽골인들의 식문화에 맞춰 한국산 프리미엄 소고기와 농산물을 집중 홍보하는

K-프레시 테마 부스를 운영했다. 이곳에서는 한우를 비롯해 현지 반응이 좋은 포도, 수박 등 다양한 K-푸드를 선보이며 새로운 식문화의 조화를 제시해 큰 인기를 끌었고 행사 이틀간 1만여 명의 현지인들에게 다채로운 K-푸드 체험 기회를 선사해 크게 호평받

았다.

또한 몽골 예능 유명 MC 엔허바르를 초청해 다양한 K-푸드 홍보 행사를 진행했다. △현지 인기 인플루언서와 함께하는 요리대회 △한국 집밥 반찬 만들기 쿠킹 클래스 △K-푸드 골든벨 등 한국 식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기회의 장을 제공했다.

몽골인 이누진 씨는 "평소에도 한국 식품을 자주 접해 왔지만 이처럼 다양한 한국식품을 한자리에서 직접 체험해볼 수 있어 행복했다"라며, "특히 평소 쉽게 접하지 못하는 신선하고 품질 좋은 한국 제철 과일을 맛볼 수 있어 행복한 시간이었다"라고 말했다.

권오승 수출식품사장은 "지난해 대몽골 농림축산식품 수출액은 119만 달러로 K-푸드 인기가 뜨겁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시장"이라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 전주상의, 동경한국상의와 간담회

### 향후 업무협약체결 등 협력관계 모색

전주상공회의소회장 김정태는 지난 6일 전주상의 중회의실에서 동경한국상공회의소(회장 김순차)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동경한국상공회의소 김순차 회장을 비롯해 동경 한국상공회의소 회장단 11명이 참석했으며, 향후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양 기관의 교류 협력 증진을 논의하고, 한국과 일본 양 국가 간 시장 진출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동경한국상공회의소는 1961년 창립 이래, 제일한국인을 대변하는 일본내 대표 경제단체로서 업종별 부회 활동, 민족금융기관 지원, 청년상공회 육성, 해외 네트워크 강화 등 다양한 한일친선 활동 및

사회공헌 활동 등을 활발하게 전개해 나가고 있다.

김정태 회장은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양 기관의 발전은 물론 한·일 양국의 우의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자"면서 "미래 지향적이고 실효성 있는 국제화 사업을 추진하여 우리 지역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밝혔다.

김순차 회장은 "오늘 간담회가 양 기관 상호간의 경제협력 관계를 심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면서 "경제·산업 분야를 포함, 각 분야의 정보를 공유하고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옥기 기자

## 전개공, 임실 오수·관촌 공공주택 건립사업 추진 박차

### 임대주택 200호... 오수80세대·관촌120세대 건립추진

전북개발공사(사장 최정호)는 임실 오수·관촌 공공주택 건립사업의 민간사업자를 지난달 23일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이달 9일 협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본격적으로 실시설계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실 오수·관촌 공공주택은 임실군 오수와 관촌지역에 양질의 임대주택을 건립, 주거 여건을 개선하고 인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전북개발공사와 임실군이 업무협약을 맺고 추진하는 사업. 인구소멸 대응과 구도심 재생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각각의 공공임대주택의 규모는 관촌



임실·관촌 공공주택 조감도

120세대(전용84㎡:60세대, 전용59㎡:60세대)로 점진강과 사선대 공원을 바라보는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위치에 건립예정이며,

/김옥기 기자



## 김경안 새만금청장, 추석 맞이 새만금 기업 임직원 격려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추석 명절을 앞둔 9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입주한 기업 테이팩스(주)를 방문하고 간담회를 통해 임직원들에게 격려의 뜻을 전했다.

테이팩스(주)공장장 김정민은 2022년 새만금에 입주한 이차전지용 점·접착 테이프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새만금이 이차전지 산업의 중심지가 되는데 기여를 하고 있다.

김경안 청장은 공장을 둘러본 후 임직원들과의 간담회에서 기업과 종사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청취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적극적으로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보다 나은 경영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윈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하며 기업 지원에 힘쓰고 있다.

주요 사례 중 하나로 입주기업 직원들의 통근을 돕기 위한 통근버스 서비스 제공과 직원들의 주거 편의를 위해 LH 임대주택을 통한 숙소 확보도 지원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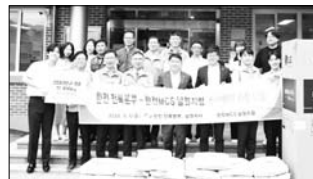
/이만호 기자

## 한전 전북본부·한전 MCS 남원지점, 합동 추석맞이 사랑나눔 실천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본부장 연원섭)는 지난 8일 한전 MCS 남원지점(지점장 정요섭)과 합동으로 남원 평화의집(원장 김종열)을 방문해 임직원들이 풍성한 한가위를 지낼 수 있도록 추석맞이 사랑나눔 활동을 실천했다.

남원 주천면에 위치한 평화의 집은 2007년 개원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로, 지적장애인 등 장애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 23명과 지원인력 23명, 총 46명이 상시 생활하고 있는 거주시설이다.

지난 2019년부터 한전 남원지사(지



사장 천창희)에서 평화의 집과 결연을 맺어 장기간 봉사를 이어오던 중, 최근 시설에 쌀이 부족하고 18년 가까이 사용한 감치냉장고가 고장이 나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게 됐다.

이에 한전에서는 전기사용고객에 대

한 전력사용량 검침 및 청구서 송달 등을 담당하는 자회사 한전 MCS 남원지점과 합동 추석맞이 김치냉장고 1대와 쌀 400kg을 기부하게 됐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연원섭 본부장은 "한전 전북본부는 전북 14개 시·군 전 지역에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급여 공제해 사회공헌활동 기금인 러브펀드 재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복지 사각지대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옥기 기자

## 경진원, 3분기 '혁신역량 강화사업' 참여기업 모집

전북도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윤여봉, 이하 진흥원)은 '2024년 소기업 혁신역량 강화사업' 시험분석 및 품질인증획득 지원사업의 3분기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2024년 소기업 혁신역량 강화사업' 시험분석 및 품질인증획득 지원사업은 도내 소기업의 생산제품 품질 및 성능 향상을 위해 제조시설을 갖춘 50인 이하 소기업 40개사 정도를 대상, 시험분석·인증취득 비용을 지원한다.

시험분석 지원은 소기업 제품의 성능이나 성분검사 또는 분석, 신뢰성 평가 등 평가·분석비용의 80%(부가세 제외)를 기업당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며, 품질인증획득 지원은 시험분

석을 통해 검증된 성능을 KS, KC, Q마크부터 신기술(NET), 신제품(NEP), 조달우수인증 등 제품 품질에 대한 공식인증을 취득하는데 기업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횟수는 연간 최대 2회, 여러분석의 건도 일괄신청이 가능하며, 시험분석 지원과 품질인증획득 지원 중 선택하여 신청하면 된다. 사업참여와 관련 자세한 정보는 진흥원 홈페이지(jbta.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9월 2일부터 9월 25일 17시까지 모집한다.

한편 '2024년 소기업 혁신역량 강화사업' 시험분석 및 품질인증획득 지원사업은 매 분기 마다 모집 및 지원한다.

/김옥기 기자

## 전북은행, 추석명절 특별운전자금 5000억원 지원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10월 8일까지 '추석 명절 특별운전자금'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전북은행은 신규 운전자금 및 기일이 도래한 중소기업대출 만기연장을 대상으로 신규 2,500억원, 만기연장 2,500억원 등 총 5,000억원 규모의 사업어울림인 및 1년 이하 운전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대출 금리는 거래 여도 등에 따라 우대금리를 적용해 이브펀드 재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복지 사각지대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추석 명절 특별운전자금 지원은 경기부진, 유동성 부족, 매출 감소에 따른 부족 자금 결제, 종업원 명절 상여금 지급 등 일시적 자금조달에 어

려움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에 지원함으로써 경기침체와 내수 부진 등 이중고를 겪고 있는 지역 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와 금융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두원 부행장은 "전북은행은 올해 도내 소상공인 유동성 지원을 위해 약 430억원을 특별 출연하여 여신지원하였으며, 매년 당기순이익의 10% 이상을 사회공헌사업에 투입해 소외받는 이웃들을 위한 사회적 책임도 이어가고 있다"라며 "지역을 대표하는 금융기관으로서 금융으로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만호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